

## 오늘의 현실과 치과인의 자세



영락병원 치과과장  
김 용 환

급변하는 국내외의 흐름속에서, 국가 사회에서 치과인의 위치가 어디이며 그상황은 과연 어떠한가를 자문하여 볼 때 쉽게 나오지 않는다. 물론, 시점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우리 치과인들은 구강병의 치료가 위주가 되어있는 치과진료에 계속 임하여 왔기 때문에,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 적응 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적응하려는 노력을 할 시간적 여유도 비교적 충분하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어, 자신들의 위치나 상황에 대한 견해가 통일되지 못하였다고도 볼수 있으나, 현재의 치권이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많은 회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새역사를 창조해야 할 새시대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는 국가사회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이며, 우리가 감당해야할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고, 우리의 권익을 어떻게 신장시켜 나아갈 것인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견해에서, 그간에도 명분있는 들과구를 찾아서 올바르게 댕댕하며, 주관성과 객관성을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치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많은 방안과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앞으로도 제시될 것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로, 오늘날 정부는 국가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를 복지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고, 이것은 국민 모두의 소망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사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을 균형있고 조화되게 추진시켜야 하고, 또한 사회개발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건개발 및 구강보건개발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 사회적 상황 속에서 실추되고 있는 치과의사의 권위를 유지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지도 모를 치권을 유지 내지 신장시키면서, 국민건강중에 구강건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길은 전 치과인이 국가 구강보건개발의 이념을 정확히 재인식하여, 국가 구강보건개발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성의있고 강력하게 정부당국에 제시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을 유지 내지 향상시킴으로써, 복지사회 구현의 밑바탕이 되는 길 뿐이라

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길은 사회적 및 제반 국가사회의 여건을 참작하여 국가 구강보건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구체적 방안을 연구 제시하여, 국민 구강건강수준을 최고도로 발전시킨다는 대외적인 명분을 찾으려 실추된 치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모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활동이나 모임과 주장은 물론, 치협에서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업계획과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관적인 치권이 아닌 객관적인 치권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재평가 조정해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권위는 치과의사 자신이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으로서만이 인정되는 것이고, 치과의사의 권익도 국민들이 존중해 줄때에만 신장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치권을 회복함으로써 순리에 따라 자연적으로 주관적인 치권도 확실히 회복 되리라고 본다.

둘째로, 국가 구강보건개발의 이념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할 구강보건개발 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업을 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교적 적은 구강보건 의료자원으로 추진하면서 구강병의 발생빈도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불소용액양치사업, 학교 이닦기사업, 상수도수불소화사업 같은 예방치과 사업과 발생한 구강병을 제도적으로 조기에 치료하게 하는 계속 구강건강 관리사업 및 이들 양대 구강보건사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 각자가 스스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 노력을 하게 하는 구강보건 교육사업이외에, 지역사회 실정과 국가개발 방향에 맞는 구강보건 인력개발을 위한 치학교육개발사업, 치과위생사 교육개발사업, 치과기공사 교육개발사업, 치과진료보조원 교육개발사업과 구강보건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할 구강보건 의로기 기술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사업과 전 국민이 필요할때 양질의 구강보건의료를 원하는 장소에서 균등히 받을 수 있는 구강보건의료 전달체제를 개발 확립하기 위한 사업등을 열거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로, 전술한 구강보건개발사업들을 정책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구강보건제의 문제점에 대한 수많은 제안, 방안, 의견들중 대부분이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없이 궁극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있으며, 정책적 측면의 지원에 대한 한결같은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필자, 역시 오늘날의 실추된 치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복지사회 실현의 밑바탕을 이룰 수 있는 국가 구강보건개발사업을 재 장렬히 제시해서 정책화시켜 국민구강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대외적 명분을 찾자고 전술했다. 정책적인 측면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까지 노력을 했다. 안했다등의 토론편인 면을 떠나서, 구강보건정책적지원의 필요성은 절대적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전술한 국가 구강보건개발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여, 정책당국자에게 국가 구강보건개발에 대한 필연성과 당위성을 인정하게 하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치과의료를 효율적이고 포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강보건학적 특성과 정책성을 인식시키면서 구강보건경제학에 관한 이론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구강보건문제의 소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예를 들어 예방치과사업중 대표적인 상수도수불소화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인정 실시된다면 이 사업에 필요한 인력, 재정, 기술자문 정도의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의 숙원인 구강보건과의 부활이 쉽사리 이루어 지리라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사회개혁의 시점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진 국가 구강보건개발의 정책적 제도적 필연성에 대한 뚜렷한 이론을 제시하여 그 당위성을 인정받는다면 구강보건국의 설치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불확실한 치과인의 상황과 위치를 벗어나 확실성있는 상황과 위치를 확보하여 정당한 우리의 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있는 치과인들께서는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정확한 방향에서 현실을 직시 판단하여, 책임감 있고, 확고한 견해와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어느때보다 말로만의 총화 단결 친목이 아닌, 폐부족에서 우러나온 전 치과인들의 굳건한 결속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

## 창조하자 민족문화 이룩하자 새역사

---

새시대 새나라에 우리문화 우리문화 빛내보자

---